

##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사업 '13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줄거리 <소서노>/오은희 작

국토팽창정책으로 동예와의 전투를 하고 있는 정복왕 온조는 온두산성을 정복하려 가다가 안개의 휩싸인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상한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왕모”라는 말에 혼란에 휩싸이는데 그런 온조 앞에 투구를 쓴 여전사가 나타난다. 그 모습에 온조는 홀린 듯 여전사를 따라 과거 봉인된 기억의 파편 속으로 들어간다.

60년 전. 졸본부여.

순수한 소녀 소서노는 송양왕의 왕후가 될 것이라는 신탁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태와 도망가서 비류와 온조를 낳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도망자의 삶을 산다. 그러나 7년 동안 집요하게 자신들을 쫓아 온 집안의 호위무사들에게 우태가 죽음을 당하고 비류와 온조마저 생명을 위협받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졸본성 최고의 여전사이자 재력자로 거듭나게 된다. 점점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소서노는 비류와 온조를 왕재로 만들기 위해 해모수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주몽을 두 번째 남편으로 맞이하여 왕위에 앉히고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한다.

소서노의 의도와는 달리 주몽의 친아들인 유리가 졸본에 오면서 적통자로서 고구려 제 1왕자가 되고 졸지에 후계 구도에서 몰려나게 된 온조는 소서노와 상의도 없이 주몽을 시해하려다 실패한다. 그 일을 계기로 주몽은 비류와 온조를 고구려에서 추방할 것을 소서노에게 요구한다. 아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소서노는 고구려에서의 모든 지위를 놓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다. 오랜 전투와 방랑 생활에 지친 유민들은 정착하고자 하는 비류파와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온조파로 갈리게 된다. 결국 소서노는 비류의 손을 들어주고 온조에게 더 이상의 정복전쟁을 그만 둘 것을 명령하지만, 온조는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소서노에 대해 살해를 지시한다.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소서노는 스스로 온조의 칼날에 뛰어들어 온조에게 성군이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그 죄책감에 더 잔혹한 정복왕이 된 온조.

다시 현재. 소서노의 호위무사 오간은 소서노의 주검을 수습하고, 긴 세월 동안 죄책감에 기억을 봉인한 채 정복의 야욕에 불타 지옥을 살고 있는 온조를 소서노의 유령 앞에 세운다. 소서노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온조는 마침내 소서노의 품 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긴 기다림 끝에 소서노의 유령과 함께 사라지는 오간. 이제 평화의 시대를 예감하는 온조만을 홀로 남긴 채.....